

# 아버지의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Gender-equal Parental Role Belief of Fathers and Maternal Gatekeeping Recognized by Fathers on Their Participation in Play and Father-Infants Intimacy

김경희<sup>1</sup> 김유미<sup>2</sup>

KyungHee Kim<sup>1</sup> Yumi Kim<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fathers and to promote play-participation with children and father-Infants Intimacy by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a father's belief concerning gender-equal parental role and the mother's roles as a gatekeeper.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91 fathers who had infants ranging from 1-36 months of age and were living in Seoul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4.0.

**Resul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ender roles, livelihood keeper-father beliefs, importance of father rearing, and the mother's role as a doorkeeper affect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play. This diff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pla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father's gender role and the mother's role as a doorkeep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imacy between the father and the infant.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fathers' belief in gender-equal parenting and mothers' encouragement through opening the door as gatekeepers affect the formation of intimacy between fathers and their children in infancy, and are factors that influence play participation.

**key words** Parental Role Belief of Father, Maternal Gatekeeping, Father's Participation in Play, Father-Infants Intimacy

\* 이 논문은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1 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졸업

####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교수  
(e-mail : yumikim7@sm.ac.kr)

## I. 서론

### 1. 연구목적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접근이다(Lamb, 201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남녀성역할 개념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는 아버지의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을 요구하며 아버지 양육참여와 태도를 변화를 더욱 격려하고 있다(박희숙,

2016; 이영환, 2008).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의 역할을 경제 활동을 통한 가족 부양자 역할로 제한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과 고유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오늘날 아버지는 남성으로서 돌봄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더 적은 책임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역할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은 정서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부각시켰다(송혜림 등, 2010). 단순히 생계부양에만 치중된 역할을 가족 내에서 수행하던 모습과 달리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 돌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가족 내에서 구성원으로써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아버지상을 말한다. 사회적인 변화 또한 아버지들의 역할 변화를 야기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부모가 공동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필요성을 높였다. 아버지의 역할로 적극적인 양육참여, 자녀와 친밀한 관계형성을 증시하게 되면서 아버지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김지원, 김낙홍, 2011; 이영환, 2008; Cabrera & Lamb, 2000).

오늘날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와 함께 자녀의 동반자이자 놀이친구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Lamb(2010)은 공동양육자로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중 가장 큰 부분이 놀이 시간이고 아버지는 새로운 놀이를 어머니보다 더 많이 시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형태가 놀이참여로 많이 나타나고 자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아버지 양육참여와 관련하여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의 특성(김혜련, 윤은주, 2019; 남도향, 2005; 조은영, 2017) 및 자녀의 놀이 친구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살펴보는 연구(고지민, 이승연, 2010; 권정윤 등, 2015; 윤영주, 2014)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것이 가지는 효과를 밝힐 수 있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놀이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통로가 되고,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남도향, 2005; 조은영, 2017). 더 나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는 관점에서(김지영, 1994; 나성은, 2014), 일반적인 돌봄 상황보다는 놀이형태의 상호작용을 주목해 볼 수 있다(배정민, 김소향 2016; 황지현, 2012).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김혜련, 윤은주, 2019; 남도향, 2005; 오로라, 2018), 이러한 관계는 영유아기 이후 아버지와 자녀 관계 및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박세영, 2015; 장영애, 2008).

이처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음에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시간은 그리 길지 않게 나타난다. 아버지는 평균적으로 평일 1시간 49분, 주말 4시간 54분 양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에 참여하는 전체 시간의 비율은 2.7:6.2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9). 이와 같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유아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부족한 실정이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참여하는 시간의 부재는 부부, 자녀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의 부모 정체성과 가족 기능을 저하하는 방향으로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된 아버지 개인 요인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모역할신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역할신념이란 한 개인이 부모가 되어감에 있어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역할에 대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개인의 생각이나 믿음을 의미한다(Bonney & Kelley, 1996). 이 때 개인의 성역할태도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과 관련이 있으나,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역할 태도보다 부모역할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Gaunt, 2008; Hofferth, 2003).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은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를 예측하며(이숙현, 권영인, 2009; Gaunt, 2008),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아버지의 역할신념은 긍정적인 양육참여를 도모한다(민지혜, 2014; 양은지, 2018). 과거 부모역할에 대한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신념은 가족 내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돌봄과 가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고정시키며,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부양자이자 훈육의 주된 책임자로 여기고 자녀에 대한 양육과 일상적 돌봄의 주된 책임은 어머니에게 두었다(곽은희, 2011). 최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모역할신념의 보수성 및 양육과 관련된 성역할 태도가 조명 받게 되면서(김형민, 조은영, 2019), 생계부양자로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해왔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 관점은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을 축소하여 평가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성역할 고정적이며 보수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점이 양성평등한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엄격한 부양자 아버지가 아닌 다정하고 친근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인식되고(조윤진, 임인혜, 2016), 부모도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신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임정순, 2002; 장수희, 2001), 가족 내 성별로 인한 역할분업을 고정하지 않는다(유성경 등, 2020). 즉,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신념을 가졌다는 것은 부모역할을 생계부양자 또는 양육자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을 여성에 비해 부족한 돌봄 능력과 더 적은 책임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아버지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목되고 있다. 아버지의 역할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김정신, 2000; 설경옥, 2005)이나 사회적 능력 및 자아존중감(장영애, 이영자 2008; 한영숙, 2006), 정서조절(이강이 등, 2007)과 자기통제능력(이수재, 이영환, 2010), 정서지능(한정현, 심미경, 2011), 창의성 발달(고선옥, 이영환, 2006) 등 자녀의 인지, 사회, 정서발달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측면보다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Cappuzzo et al., 2010). 그리고 남성들도 이전보다는 가족으로부터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Goodsell & Meldrum, 2010).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놀이형태의 돌봄으로 나타나고 놀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특성이 있으므로, 최근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이 생애 초기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와 친밀감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버지들은 자녀와 신체놀이, 기능놀이와 구성놀이를 주로 하고 역할놀이나 게임놀이에는 참여가 낮은 편이다(김명순 등, 201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버지가 영아기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는 놀이의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의 맥락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부모역할 신념이 각 놀이유형과 가지는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버지 양육참여에 있어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같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아내 요인 역시 영향을 미친다(Marsinglio, 1991). 배우자인 아내가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데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Maurer et al., 2001). 부부 또한 서로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관계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내가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아내의 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지영, 2008; Marsiglio et al., 2000; Fox & Bruce, 2001). 아버지가 영향을 받는 배우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주목할 수 있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Maternal gatekeeping)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가사 및 자녀양육을 협력하기를 주저하거나 아버지 개입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어머니의 신념 및 행동을 의미한다(Allen & Hawkins, 1999).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 열기와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의 상호작용을 방해, 통제, 제한하고 부정적인 부부관계와 관련된 문 닫기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김애숙, 2019).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각 개인의 역할만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호적인 측면과 역동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배우자 변인 또한 아버지의 가정 내 참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형태인 놀이참여의 실제와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되어 아버지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아 가족관계 체계 내에서 보다 총체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아기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고 자녀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기 아버지를 둘러싼 내적, 외적 환경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와 친밀감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출생 이후 새로운 부모 역할을 정립하는 시기로 이 때 정립된 부모 역할은 지속되는 특성이 있고, 아버지-자녀 관계에 있어 결정적 시기로 간주된다(Doherty et al., 200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아버지 역할을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과 놀이참여의 일반적 경향 및 변수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놀이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자녀로 둔

아버지 2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부하여 319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응답지 중 부실 기재 혹은 무응답, 조건을 미충족한 28부를 제외한 29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연령은 35세 이상-40세 미만 230명(79%), 40세 이상-45세 미만 53명(18.2%), 45세 이상이 8명(2.7%)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27명(9.2%), 대졸 206명(70.8%), 석사이상 58명(19.9%)이었다. 자녀수는 1명 163명(56.0%), 2명 109명(37.5%), 3명이상 19명(6.5%)이었으며, 자녀성별은 남아 154명(52.9%), 여아 137명(47.1%), 12개월 이하 51명(17.5%), 13개월-24개월 이하 84명(28.9%), 25개월-36개월 이하 156명(53.6%)이었다. 그리고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는 123명(42.3%), 맞벌이 168명(57.7%)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Bonney와 Kelly(1996)의 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 Scale(BCPR)을 바탕으로 조운진, 임인혜(2016)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 부모역할신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5문항으로 남녀 역할의 구분(4문항), 양육자-어머니 신념(5문항),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3문항), 생계 부양자-아버지 신념(3문항)을 하위 요소로 한다. 남녀 역할의 구분(4문항)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돌봄 능력이 부족하고 더 적은 책임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신념을 의미하고, 양육자-어머니 신념(5문항)은 어머니의 역할을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주 양육자이자 가사 노동자로 제한하는 신념이다. 생계 부양자-아버지 신념(3문항)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경제 활동을 통한 가족 부양의 역할로 제한하는 신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해석의 간명함을 위하여 남녀 역할 구분, 양육자-어머니 신념, 생계 부양자-아버지 신념에 해당하는 전체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하위영역 및 총점이 높을수록 평등적인 부모역할신념을 지녔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은 점수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인 부모역할신념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부모역할신념 척도의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아버지 부모역할신념 측정도구 하위영역별 신뢰도

하위영역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남녀 역할 구분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돌봄 능력이 부족하고, 더 적은 책임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신념	11*, 13*, 14*, 15*	4	.83
양육자-어머니 신념	어머니의 역할을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주 양육자이자 가사 노동자로 제한하는 신념	2*, 3*, 7*, 9*, 10*	5	.85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신념	5, 6, 8	3	.86
생계부양자 - 아버지 신념	아버지의 정체성을 경제 활동을 통한 가족 부양의 역할로 제한하는 신념	1*, 4*, 12*	3	.69

\* 표시:역코딩 문항

2)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본 연구에서는 조운진, 임인혜(2016)가 제작하여 조운진(2017)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용으로 사용한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역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 공동양육의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가사 노동참여를 격려하는 어머니의 태도인 문 열기(9문항)와 아버지의 참여에 대해 비난하거나 통제하는 어머니의 태도인 문 닫기(8문항)로 구성되었으며 6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어머니의 해당 역할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문 닫기 역할 인식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0이었으며, 문 열기 역할 인식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문 열기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가사 노동 참여를 격려하는 어머니의 태도	1,2,3,4,5,6,7,8,9	9	.87
문 닫기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가사 노동 참여를 비난하거나 통제하여 아버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머니의 태도	10,11,12,13,14,15,16,17	8	.80

3) 놀이참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알아보기 위하여 윤상인(2011)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은 Smilansky(1968)와 Lamb(1976)의 범주를 기초로 Stevenson 등(1988)이 개발한 놀이유형을 기본으로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정도 단계와 관련 선행연구(송은혜, 2008; 원희영, 1998; 한영숙, 2006)를 참고로 구성된 영아 부모의 놀이참여를 살펴보는 설문이다. 설문은 총 2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각 유형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놀이참여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5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놀이 하위유형별 놀이참여 신뢰도

하위유형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기능놀이	기능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단순한 놀이행동, 놀이감의 속성에 관계없이 자발적이고 활발하게 사물을 조작하는 놀이	5	1,4,8,14,16	.84
구성놀이	다양한 놀이감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놀이, 만들기, 쌓기 등 사물을 배열하는 놀이	4	2,5,13,15	.83
신체놀이	상대방과 놀이적인 접촉이 있는 놀이: 작은 신체놀이 거친 신체놀이 등	4	3,10,11,20	.76

표 3. 계속

하위유형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교육놀이	사물이름, 색깔, 수 명명하기, 가리키는 것 등 질문에 대답하면 인정해 주는 놀이	4	9,17,19,23	.84
게임놀이	규칙이 있는 목표지향적인 성취,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놀이, 패턴이 있는 상호작용적 놀이	3	7,12,18	.70
상징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상하거나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변형시켜 표상하는 놀이	4	6,21,22,24	.82
전체			24	.95

#### 4)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ianta와 Nimetz(1991)의 교사-유아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이진숙과 조복희 번안, 2001)를 한 영숙(2006)이 아버지용으로 번안한 내용 중 ‘친밀감’ 하위요인을 재구성한 전해영(201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친밀감은 자녀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갖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는 정도를 의미하여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전해영, 2018). 해당 척도는 5점 평정척도의 12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친밀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9로 나타났으며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 신뢰도

하위영역	내용	문항수	Cronbach's $\alpha$
친밀감	자녀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갖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는 정도	12	.89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 문항 내용의 적절성, 보완점 및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부터 2020년 2월 8일 사이에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4명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예비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에 어려운 점이 발견되지 않아 예비조사에 사용한 문항의 순서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2월부터 9월부터 3월 8일까지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가진 아버지 총 2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지는 영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지인을 통한 눈덩이표집으로 이루어졌고 총 201부 회수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지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직접 협조를 의뢰한 후 각 기관의 만 0세, 만 1세, 만 2세 반에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6곳에

서 총 11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319부의 설문지 중 부실기재 혹은 무응답, 조건을 미충족한 28부를 제외한 29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및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과 놀이참여라는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및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자녀 친밀감과 놀이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하위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윤진, 임인혜, 2016; Schoppe-Sullivan et al., 2008)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문 열기, 어머니의 문 닫기 요인을 독립적인 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아버지 부모역할신념, 어머니 문지기 역할, 아버지의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 및 놀이 참여의 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 부모역할신념의 전체 평균은 2.38점( $SD = .48$ ),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전체 평균은 3.46점( $SD = .45$ ), 친밀감의 전체 평균은 4.17점( $SD = .51$ ), 놀이참여의 평균은 3.34점( $SD = .50$ )으로 나타났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측정 변수의 일반적 경향 (N = 291)

변인 하위요인	M	SD	range	
남녀역할구분*	2.01	.72	1-4	
아버지의 부모 역할신념	양육자-어머니신념*	2.05	.73	1-4
	아버지 양육 중요성	3.6	.52	1-4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2.19	.68	1-4
	전체	2.38	.48	1-4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문 열기	4.27	.85	1.56-6
	문 닫기	2.54	.82	1-6
친밀감	4.17	.51	1-5	

표 5. 계속

변인 하위요인	<i>M</i>	<i>SD</i>	range	
놀이참여	기능놀이	3.23	.62	1-4
	구성놀이	3.17	.63	1.25-4
	신체놀이	3.54	.49	2-4
	교육놀이	3.31	.59	1-4
	게임놀이	3.60	.48	1.67-4
	상징놀이	3.28	.61	1-4
	전체	3.34	.50	1-4

\* 표시: 역코딩 문항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은 아버지 양육 중요성( $M=3.6, SD=.52$ ),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M=2.19, SD=.68$ ), 양육자-어머니신념( $M=2.05, SD=.73$ ), 남녀역할구분( $M=2.01, SD=.72$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문 열기( $M=4.27, SD=.85$ )가 문 닫기( $M=2.54, SD=.82$ )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친밀감의 전체 평균은 4.17( $SD=.51$ )로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의 친밀감은 높게 나타났다. 놀이참여의 평균은 3.34( $SD=.50$ )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게임놀이( $M=3.60, SD=.48$ ), 신체놀이( $M=3.54, SD=.49$ ), 교육놀이( $M=3.31, SD=.59$ ), 상징놀이( $M=3.28, SD=.50$ ), 기능놀이( $M=3.23, SD=.62$ ), 구성놀이( $M=3.17, SD=.63$ )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부모역할 신념 중 남녀역할구분은 양육자-어머니신념( $r=.73, p<.01$ ),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r=.61, p<.01$ ), 아버지 양육중요성( $r=.31, p<.01$ )과 어머니의 문 열기( $r=.21, p<.01$ ), 자녀와의 친밀감( $r=.31, p<.01$ ), 자녀와의 놀이참여( $r=.411, p<.01$ )와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남녀역할 구분은 기능놀이( $r=.39, p<.01$ ), 구성놀이( $r=.34, p<.01$ ), 신체놀이( $r=.30, p<.01$ ), 교육놀이( $r=.37, p<.01$ ), 게임놀이( $r=.40, p<.01$ ), 상징놀이( $r=.37,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 중 문 닫기( $r=-.16, p<.01$ )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부모역할 신념 중 양육자-어머니신념은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r=.63, p<.01$ ), 아버지 양육중요성( $r=.30, p<.01$ )과 어머니의 문 열기( $r=.26, p<.01$ ), 자녀와의 친밀감( $r=.25, p<.01$ ), 자녀와의 놀이참여( $r=.37,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문 닫기( $r=-.16, p<.01$ )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육자-어머니 신념은 기능놀이( $r=.34, p<.01$ ), 구성놀이( $r=.30, p<.01$ ), 신체놀이( $r=.28, p<.01$ ), 교육놀이( $r=.35, p<.01$ ), 게임놀이( $r=.33, p<.01$ ), 상징놀이( $r=.33,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은 아버지 양육중요성( $r=.35, p<.01$ ), 어머니의 문 열기( $r=.25, p<.01$ ), 자녀와의 친밀감( $r=.23, p<.01$ ), 자녀와의 놀이참여( $r=.43, p<.01$ )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기능놀이( $r=.38, p<.01$ ), 구성놀이( $r=.36, p<.01$ ), 신체놀이( $r=.31, p<.01$ ), 교육놀이( $r=.41, p<.01$ ), 게임놀이( $r=.39, p<.01$ ), 상징놀이( $r=.39, p<.01$ )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중 마지막 하위요인인 아버지 양육중요성은 어머니의 문 열기( $r=.26, p<.01$ ), 자녀와의 친밀감( $r=.27, p<.01$ ), 자녀와의 놀이참여( $r=.34, p<.01$ )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기능놀이( $r = .23, p < .01$ ), 구성놀이( $r = .31, p < .01$ ), 신체놀이( $r = .28, p < .01$ ), 교육놀이( $r = .29, p < .01$ ), 게임놀이( $r = .31, p < .01$ ), 상징놀이( $r = .32,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문 열기’는 자녀와의 친밀감( $r = .53, p < .01$ ), 놀이참여( $r = .41, p < .01$ ), 각 유형별 놀이참여에 해당하는 기능놀이( $r = .40, p < .01$ ), 구성놀이( $r = .37, p < .01$ ), 신체놀이( $r = .34, p < .01$ ), 교육놀이( $r = .36, p < .01$ ), 게임놀이( $r = .32, p < .01$ ), 상징놀이( $r = .34,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이 평등할수록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문 열기를 더 많이 인식하며 자녀와의 친밀감도 높고 유형별 놀이참여와 전체적인 놀이참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문 닫기’는 아버지의 자녀와의 친밀감( $r = -.30, p < .01$ ), 아버지의 놀이참여( $r = -.25, p < .01$ ), 기능놀이( $r = -.17, p < .01$ ), 구성놀이( $r = -.23, p < .01$ ), 신체놀이( $r = -.21, p < .01$ ), 교육놀이( $r = -.23, p < .01$ ), 게임놀이( $r = -.25, p < .01$ ), 상징놀이( $r = -.22, p < .01$ )와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문 닫기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자녀와의 친밀감은 낮고 유형별 놀이참여와 전체적인 놀이참여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밀감은 놀이참여( $r = .51, p < .01$ )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으면 놀이참여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73**	1												
3	.61**	.63**	1											
4	.31**	.30**	.35**	1										
5	.21**	.26**	.25**	.26**	1									
6	-.16**	-.16**	-.10	-.04	-.43**	1								
7	.31**	.25**	.24**	.27**	.53**	-.30**	1							
8	.41**	.37**	.43**	.34**	.41**	-.25**	.51**	1						
9	.39**	.34**	.38**	.29**	.40**	-.17**	.47**	.91**	1					
10	.34**	.30**	.36**	.31**	.37**	-.23**	.45**	.90**	.81**	1				
11	.31**	.28**	.31**	.28**	.34**	-.21**	.45**	.80**	.68**	.62**	1			
12	.37**	.35**	.41**	.29**	.36**	-.23**	.43**	.88**	.72**	.78**	.62**	1		
13	.40**	.33**	.39**	.31**	.32**	-.25**	.42**	.78**	.63**	.59**	.66**	.66**	1	
14	.37**	.33**	.39**	.32**	.34**	-.22**	.42**	.91**	.78**	.78**	.67**	.80**	.70**	1

\* $p < .05$ , \*\* $p < .01$ , \*\*\* $p < .001$ .

1. 남녀역할구분\* 2. 양육자-어머니 신념\* 3. 생계부양자-아버지 신념\* 4. 아버지 양육 중요성 5. 문열기 6. 문닫기, 7. 친밀감 8. 놀이참여 총점 9. 기능놀이 10. 구성놀이 11. 신체놀이 12. 교육놀이 13. 게임놀이 14. 상징놀이

\* 표시:역코딩 문항

## 2.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인식한 부모역할신념,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역할이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공선성 진단 상태지수(CI) 및 Dubin-Watson 계수를 검증하여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VIF계수는 다중공선성 판단기준인 10 미만으로 작고, 공선성 진단 상태지수(CI)는 기준점 3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bin-Watson 값은 1.90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매우 가까운 수준이므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이 나타났다. 다음 표 7과 같이 아버지 부모역할 신념의 하위 요인 및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투입된 회귀모형은 아버지의 놀이 참여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F = 14.31, p < .001$ ), 투입된 변수가 가지는 아버지의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에 대한 설명력은 32%였다.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중 남녀역할구분( $t = 2.38, p < .05$ ), 아버지 양육중요성( $t = 2.85, p < .01$ ),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t = 2.96, p < .01$ ), 아버지가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의 문 열기( $t = 4.36, p < .001$ )가 놀이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구분하는 신념이 양성평등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생계부양자로만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를 많이 인지하고 있을 때에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아버지가 인식한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

		$B(\beta)$	$t$	$R^2$ ( $adjR^2$ )	$F$
아버지 부모역할 신념	남녀역할구분*	.13 (.19)	2.38*	.34(.32)	14.31***
	양육자-어머니신념*	-.01(-.01)	-.15		
	아버지 양육중요성	.15 (.15)	2.85**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14 (.19)	2.96**		
어머니 문지기 역할	문 열기	.15 (.25)	4.36***		
	문 닫기	-.05(-.08)	-1.56		

\* $p < .05$ , \*\* $p < .01$ , \*\*\* $p < .001$ .

\* 표시: 역코딩 문항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역할이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놀이 유형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놀이유형의 하위요인 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에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 연령을 만 0세( $N = 51$ ), 만1세( $N = 84$ ), 만2세( $N = 156$ )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능놀이( $p > .05$ ), 구성놀이( $p > .05$ ), 교육놀이( $p > .05$ ), 상징놀이( $p > .05$ ), 신체놀이( $p > .05$ ), 게임놀이( $p > .05$ ) 모두에서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분산팽창계수(VIF), 공선성 진단 상태지수(CI) 및

Dubin-Watson 계수를 검증하여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VIF계수는 모두 10 미만, 공선성 진단 상태지수(CI)는 3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bin-Watson 값은 기능놀이 1.92, 구성놀이 2.01, 신체놀이 1.95, 교육놀이 2.03, 게임놀이 1.99, 상징놀이 1.89로 정상분포곡선 2에 가까운 수치였다.

아버지의 부모역할 신념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놀이참여에 미치는 회귀식은 기능놀이( $F = 11.76, p < .001$ ), 구성놀이( $F = 9.95, p < .001$ ), 신체놀이( $F = 7.59, p < .001$ ), 교육놀이( $F = 10.82, p < .001$ ), 게임놀이( $F = 11.15, p < .001$ ), 상징놀이( $F = 10.06, p < .001$ )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투입한 변수가 아버지의 놀이참여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표 8과 같이 19% ~ 27%로 나타났다. 놀이 유형별로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남녀역할구분( $t = 2.44, p < .05$ )과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t = 2.17, p < .05$ )이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의 기능놀이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가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의 문 열기( $t = 5.07, p < .001$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부모 역할에서 남녀역할 구분을 많이 하지 않고 생계부양자로서만 아버지 역할을 제한하지 않을 때 자녀와의 놀이 중 기능놀이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를 많이 인지하고 있을 때에도 기능놀이 참여가 높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버지 양육중요성( $t = 2.58, p < .05$ )과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t = 2.58, p < .01$ ), 아버지가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의 문 열기( $t = 3.57, p < .001$ )가 영아기 자녀의 구성놀이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가 양육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생계부양자로서 자신을 제한하지 않을 때 영아기 자녀의 구성놀이에 참여가 높음을 나타낸다. 신체놀이에서는 아버지의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t = 1.57, p < .05$ )이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의 신체놀이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문 열기( $t = 3.37, p < .01$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놀이 또한 생계부양자-아버지 신념( $t = 3.23, p < .05$ )과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문 열기( $t = 3.42, p < .05$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생계부양자로서 자신의 역할 제한을 덜 할수록 신체놀이와 교육놀이에 참여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 또한 자녀와의 두 놀이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놀이에서는 아버지 양육중요성( $t = 2.78, p < .01$ )과 남녀역할구분( $t = 2.94, p < .05$ ), 생계부양자-아버지 신념( $t = 2.46, p < .05$ ),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문 열기( $t = 2.34, p < .05$ )와 문 닫기( $t = -2.56, p < .05$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놀이에서는 아버지 양육중요성( $t = 2.89, p < .01$ )과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t = 2.60, p < .01$ ),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문 열기( $t = 3.04, p < .01$ )가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의 상징놀이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생계부양자로서만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고 남녀 역할 구분이 덜 할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격려와 지지를 잘 인식하고 있을수록 자녀와의 게임놀이 및 상징 놀이에서 참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칙이 있는 목표지향적이며, 경쟁이 포함된 게임놀이에서는 어머니의 문닫기 행동이 아버지의 놀이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아버지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놀이참여에 미치는 놀이 유형별 영향

		$B(\beta)$	$t$	$R^2$ ( $adjR^2$ )	$F$	
기 능 놀 이		남녀역할구분*	.16(.19)	2.44*		
	아버지	양육자-어머니신념*	-.01(-.01)	-.07		
		부모역할신념	아버지 양육중요성	.12(.10)	1.88	.30(.27)
	어머니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14(.15)	2.17*		
		문지기 역할	문 열기	.22(.30)	5.07***	
			문 닫기	.00(.01)	.10	
		$B(\beta)$	$t$	$R^2$ ( $adjR^2$ )	$F$	
구 성 놀 이		남녀역할구분*	.11(.13)	1.60		
	아버지	양육자-어머니신념*	-.03(-.04)	-.43		
		부모역할신념	아버지 양육중요성	.18(.15)	2.66*	.26(.24)
	어머니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17(.19)	2.58**		
		문지기 역할	문 열기	.16(.22)	3.57***	
			문 닫기	-.07(-.10)	-1.67	
		$B(\beta)$	$t$	$R^2$ ( $adjR^2$ )	$F$	
신 체 놀 이		남녀역할구분*	.09(.13)	1.63		
	아버지	양육자-어머니신념*	.01(.02)	.21		
		부모역할신념	아버지 양육중요성	.14(.15)	2.47	.21(.19)
	어머니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08(.12)	1.57*		
		문지기 역할	문 열기	.12(.21)	3.37**	
			문 닫기	-.04(-.08)	-1.26	
		$B(\beta)$	$t$	$R^2$ ( $adjR^2$ )	$F$	
교 육 놀 이		남녀역할구분*	.10(.13)	1.61		
	아버지	양육자-어머니신념*	.00(.00)	.04		
		부모역할신념	아버지 양육중요성	.12(.11)	1.88	.28(.25)
	어머니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02(.23)	3.23*		
		문지기 역할	문 열기	.14(.20)	3.42*	
			문 닫기	-.07(-.10)	-1.72	
		$B(\beta)$	$t$	$R^2$ ( $adjR^2$ )	$F$	
게 임 놀 이		남녀역할구분*	.15(.23)	2.94*		
	아버지	양육자-어머니신념*	-.04(-.05)	-.68		
		부모역할신념	아버지 양육중요성	.12(.16)	2.78**	
	어머니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14(.17)	2.46*	.29(.26)	
		문지기 역할	문 열기	.08(.14)	2.34*	
			문 닫기	-.08(-.15)	-2.56*	
		$B(\beta)$	$t$	$R^2$ ( $adjR^2$ )	$F$	
상 징 놀 이		남녀역할구분*	.13(.15)	1.90		
	아버지	양육자-어머니신념*	.00(.00)	.01		
		부모역할신념	아버지 양육중요성	.19(.16)	2.89**	
	어머니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16(.18)	2.60*	.26(.24)	
		문지기 역할	문 열기	.13(.18)	3.04**	
			문 닫기	-.07(-.09)	-1.53	

\*  $p < .05$ , \*\*  $p < .01$ , \*\*\*  $p < .001$ .

\* 표시: 역코딩 문항

### 3. 아버지의 부모역할 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역할이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마찬가지로 분산팽창계수(VIF), 공선성 진단 상태지수(CI) 및 Dubin-Watson 계수를 검증하여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VIF 계수는 모두 10 미만, 공선성 진단 상태지수(CI)는 3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Dubin-Watson 값은 2.03으로 정상분포곡선 기준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부모역할 신념의 하위 요인 및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투입된 회귀모형은 표 9와 같이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F = 14.79, p < .001$ ), 투입된 변수가 가지는 아버지의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에 대한 설명력은 32%였다. 아버지의 남녀역할구분( $t = 3.10, p < .01$ )이 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문 열기( $t = 7.81, p < .001$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구분하는 신념이 평등하면서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를 많이 인지하고 있을 때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한 신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녀와의 친밀한 사이를 만드는데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 아버지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영아기 자녀와 아버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B(\beta)$	$t$	$R^2$ ( $adjR^2$ )	$F$
	남녀역할구분*	.16( .23)	3.10**		
아버지 부모역할신념	양육자-어머니신념*	-.05(-.07)	-.85		
	아버지 양육중요성	.10( .10)	1.88	.35(.32)	14.79***
	생계부양자-아버지신념*	-.02(-.02)	-.32		
어머니 문지기 역할	문 열기	.27( .44)	7.81***		
	문 닫기	-.05(-.08)	-1.45		

\*\*  $p < .01$ , \*\*\*  $p < .001$ .

\* 표시:역코딩 문항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변화하는 아버지 역할관점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자녀의 생애 초기에 형성하는 관계가 중요하며 상당부분 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36개월 미만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지각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의 친밀감, 아버지의 영아 자녀 놀이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비교적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신념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신념을 살펴본 최근 연구(김지원, 2022; 정순심, 문혁준, 2019)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이며, 특히 아버지들은 아버지 양육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아버지의 인식이 과거 성 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었던 전통적인 부모역할 신념에서 벗어나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성 역할에 대한 벽을 허물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려는 신념을 가지고 자녀양육을 어머니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으려는 신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문 닫기 역할보다 문 열기 역할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황윤아(2015)는 아내가 남편의 양육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비난하는 행동보다는 격려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아버지들의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신념이 긍정적인 영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놀이참여, 일상적 양육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의 단계별 발달 정보와 놀이 방법이나 육아철학의 내용이 포함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및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문 열기는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 및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및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중 문 닫기 행동은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 및 친밀감에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높고,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가 높을수록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가정 내 역할공유가 높다는 측면(박선주, 2017; 신소영, 2018; 황윤하, 2015)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문 닫기 행동과 아버지 양육참여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신소영, 2018; Schoppe-Sullivan et al., 2008)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과 놀이참여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 독려와 영아기 자녀와 친밀감을 쌓는데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관련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믿지 못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문열기 행동,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하위요인들 중 생계부양자-아버지 신념, 남녀역할구분, 아버지 양육 중요성 인식이 자녀와의 전반적 놀이참여에 영향을 준다. 먼저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의 하위요인 중 문 열기 행동은 아버지의 놀이참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문 열기 행동을 높게 인식할수록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들(이영환 등, 2016; 신소영, 2018; 황윤하, 2015; Schoppe-Sullivan et al., 2008)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는 놀이참여에 있어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실제 수준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지만,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에 대한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인식 수준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 시 어머니는 자신이 보이는 특정 행동을 문 닫기 역할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문 닫기 역할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 양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고, 남녀역할을 구분하는 정도와 생계부양자로서만 아버지 역할을 인식하는 신념이 낮을수록 영아기 아버지와 자녀의 놀이참여 행동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의 성역할신념이 아버지가 자녀와 관련하여 발달적지지, 돌보기,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양육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선주, 2017; 이영환 등, 2016; 조윤진, 2017; Gaunt & Scott, 2014; Goldberg, 2015)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 실제 아버지의 놀이참여 행동 또한 이끌어내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아버지의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 적극성과 관련 변수를 하위 놀이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가사노동자로 제한하는 양육자 어머니 신념은 모든 놀이 영역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적극성에 대한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비교적 양성평등한 부모역할 신념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영아기 자녀와 놀이를 하는 데 어머니의 역할을 양육자 신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설명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비교하여 아버지의 놀이참여에는 아버지 자신의 부모 역할 신념이 유의한 변수였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구성놀이, 교육놀이, 게임놀이, 상징놀이의 참여가 높았다. 더 나아가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기능놀이, 신체놀이 참여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주로 자녀와 신체놀이, 기능놀이를 하므로(김명순 등, 2013; 김은주, 2009) 아버지의 부모역할 인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활동 주체인 생계부양자 역할만으로 고정하여 인식하지 않는 신념은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모든 하위 영역인 기능놀이, 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육놀이, 게임놀이, 상징놀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였다. 이는 앞 서 살펴 본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더욱 확장하여 받아들이는 경우 영아기 자녀와의 모든 유형의 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가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해 남성이 여성이 비해 돌봄 능력이 부족하고 더 적은 책임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 부모역할 신념은 아버지가 영아기 자녀와 기능놀이, 게임놀이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예측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문열기는 모든 하위 놀이영역에서 아버지 놀이참여를 예측하는 변수였으며, 어머니의 문닫기는 게임놀이에서 아버지 놀이참여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게임놀이가 가지는 특성에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익숙하지 않아 자녀와 많은 상호작용을 동반하는 놀이인 역할놀이나 교수놀이, 게임놀이와 같은 유형보다는 기능놀이와 구성놀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김명순 등, 2013). 그리고 아버지가 신체놀이와 게임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유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증진과 관련된다는 점(박신영, 이진희, 2013)에서 게임놀이가 가지는 상호작용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가사노동 참여를 비난하거나 통제하는 문닫기 행동은 아버지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게임놀이 참여를 낮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는 아버지의 게임놀이 참여가 높을수록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김경희, 김세곤, 2021)에서 향후 아버지의 게임놀이 참여와 관련된 변수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를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같은 개인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김가운, 신혜영,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놀이 참여가 아버지 개인 변인뿐만 아니라 놀이의 특성 및 어머니의 태도와도 복합적으로 관련됨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의 하위요인들 중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버지 양육중요성과 남녀역할구분이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돌봄 능력과 책임을 갖는다고 보는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았다. 아버지의 역할 인식에 따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고(김지원, 김낙홍, 2011), 권위주의적 부성을 거부하며 부모역할에서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친밀성 형성과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중시한다(나성은, 2014).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놀이참여시간과 상호작용의 양은 적게 나타나더라도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사용방법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보임으로써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Bronstein & Cowan, 1988; Parke & Tinsley, 1987).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돌봄에 대한 능력과 책임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고, 영아기 자녀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일수록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양성평등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신념은 유아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나 책임감과도 정적인 관련이 있다(Hofferth, 2003).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평등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들은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으며(김영희, 이소영, 2014),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아버지는 양육참여가 높게 나타난다(김태희, 2016; 이은실, 최혜영, 2009). 더 나아가 양성평등적 부모역할신념은 기존의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신념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친근한 아버지로서 부부 간에도 양육 부담을 평등하게 수용하려고 한다(Fox & Bruce, 2001).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신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역할에 있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관심을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 확대도 함께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 열기 행동은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 하위요인들 중 아버지 양육중요성과 남녀역할구분보다 자녀와의 친밀감 인식에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 아버지가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의 신뢰와 지지는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가면서 자녀와 맺는 관계와 역할이 증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최근 변화되고 있는 어머니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Sarkadi et al., 2008). 자녀와 함께 부모가 되어가는 시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어머니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즉, 어머니가 배우자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행동으로 많은 격려를 한다고 아버지가 인식하는 것은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감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 자녀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한 교육기관의 부모들과 눈덩이 표집을 통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설문지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탐색해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위한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문닫기 행동을 보이며 아버지의 양육시간과 참여를 제한한다(Fagan & Barnett, 2003; Schoppe-Sullivan & Altenburger, 2019).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문닫기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Belsky(1984)의 양육 결정모델에 기반하여 볼 때 개인적 특성과 부부 간 관계, 친족, 지역사회,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양육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문닫기 행동 경향이 높은 배우자를 둔 남편은 단지 부부의 성격특성 및 성향뿐만 아니라 공동양육 시스템인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의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대인관계와 지원의 영향을 받는다(Feinberg, 200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부부생활만족도와 같은 관계와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부모역할신념이 평등할 때와 더불어 어머니 또한 열린 방식으로 아버지를 지지하고 격려할 때,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참여와 친밀감 형성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영아기에 관한 연구와 아버지라는 대상에 대한 아버지 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문 닫기 행동과 양육참여와의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국내 현황에서 어머니의 문 열기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아버지 외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아버지의 성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내재적인 인지측면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어머니들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동일한 가치관을 지향하는 훈육과 같은 부모공동양육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전선영, 이희선, 2022), 아버지들도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후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는다(최혜영, 2021). 따라서 양성평등한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사회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의 실체는 가족 내에서 다각적인 측면과 양육자 간 상호 이해를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 영아기 자녀 발달이나 교육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은희 (201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성역할 고정관념,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고선옥, 이영환 (2006).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특성, 양육신념, 유아의 창의성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47, 1-19.

- 고지민, 이승연 (2010). 만 2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상황에서의 반응성 분석. **유아교육연구**, 30(2), 147-165.
- 김가운, 신혜영 (2013).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191-213.
- 김경희, 김세곤 (2021). 유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양육참여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27, 117-142. <https://doi.org/10.37918/kce.2021.3.127.117>
- 김명순, 조향린, 박영림, 신혜영 (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4.
- 김애숙 (2019). 어머니의 문지기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이소영 (2014). 유아기 아버지 자기결정성과 부모역할 동기 및 역할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8(1), 25-38.
- 김은주. (2009). 유아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및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신 (2000).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1994).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 (2022).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모역할 신념, 가족친화제도, 어머니 문지기 행동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 김낙홍 (2011). 영아기 자녀 아버지의 역할인식과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89-210
- 김태희 (2016). 아버지 아동기 경험 및 부모역할 만족감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민, 조은영 (2019).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PIMeM)의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24(4), 49-65. <https://doi.org/10.20437/KOAECE24-4-03>
- 김혜련, 윤은주 (2019). 영아기 자녀와의 신체동작 놀이가 아버지 되기 경험에 주는 의미 탐구: G 영유아 놀이 교육 기관 경험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0(4), 29-52. <http://doi.org/10.5723/kjcs.2019.40.4.29>
- 나성은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내재한 젠더 위계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맞벌이 중간 계층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1), 1-39. <http://doi.org/10.21478/family.26.1.201403.001>
- 남도향 (2005). 영아놀이성과 아버지-영아상호작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지혜 (2014). 아버지 양육참여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 문제행동간의 관계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주 (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영 (2015). 아버지와 자녀의 여가활동과 자녀 행복감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 이진희 (2013). 어린이집-가정 연계를 통한 아버지 놀이참여 활동이 놀이신념 및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8(1), 29-56.
- 박희숙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유아기 발달 간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3), 251-272.
- 배정민, & 김소향. (2016). 아버지의 놀이신념 및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5(3), 23-49.
- 설경옥 (2005).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혜림, 고선강, 박정윤, 권혜진, 김유정, 김미정 (2010).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의 제안**. 한국가정관리학회 2010년 춘계 학술대회 논문, 서울.
- 신소영 (2018).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신념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은지 (2018). 부부 공동양육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아버지 역할수행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로라 (2018). 아버지의 부모역할신념과 양육참여의 관계: 양육효능감과 가족친화적 조직분위기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희영 (1998).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방지원, 임인혜, 최보윤, 김수영 (2020).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여성연구**, 107(4), 109-141.
- 윤상인 (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주 (2014). '놀이하는 아빠'로서의 지나온 경험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87-199.
-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실, 최혜영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양육 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7(5), 13-22.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 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이영환, 김정희, 차평, 한지현 (2016). 한국과 중국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 및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 비교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207-226. <https://doi.org/10.14698/jkcce.2016.12.06.207>
- 이수재, 이영환 (2010). 아버지-유아 상호작용 유형 및 아버지 통제전략이 유아의 자기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99-118.
- 이숙현, 권영인 (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 이지영 (2008).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과 자녀 양육 참여: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조복희 (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7-29.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9. 08). **2019년 1차 저출산 인식 조사- 아빠들이 말하는 육아경험과 의미**. <http://www.ppfk.or.kr/sub/population/issue/issue1.asp>에서 2019년 08월 21일 인출.
- 임정순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원.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수희 (2001). 한국가족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2008).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 참여도 영향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1), 87-99.
- 장영애, 이영자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전선영, 이희선 (2022).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3), 37-59. <https://doi.org/10.14698/jkcce.2022.18.03.037>
- 전혜영 (2018).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아버지의 놀이참여 매개효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심, 문혁준 (2019). 아버지가 인식한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1(1), 71-94.
- 조윤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의 문지기역할, 부부공동양육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윤진, 임인혜 (2016). 한국판 어머니·아버지 역할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3), 69-100.
- 조은영 (2017). 영유아기 아버지의 상호작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구성: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활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영 (2021). 육아휴직을 경험한 아버지의 부모역할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1), 125-150. <https://doi.org/10.14698/jkcce.2021.17.01.125>
-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한정현, 심미경 (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생애학회지**, 1(1), 19-31.
- 황윤하 (2015).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양육 효능감.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황지현 (2012).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99-212. <https://doi.org/10.2307/353894>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onney, J. E., & Kelley, M. (1996). Development of a measure assessing maternal and paternal beliefs regarding the parental role: The 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Old Dominion University. Norfolk, VA.
- Bronstein, P., & Cowan, C. P. (Eds.). (1988).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John Wiley & Sons.
- Cabrera, N., Tamis-LeMondan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21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https://doi.org/10.1111/1467-8624.00126>
- Capuozzo, R. M., Sheppard, B. S., & Uba, G. (2010). BOOT CAMP FOR NEW DADS: The Importance of Infant-Father Attachment. *YC Young Children*, 65(3), 24-28.
- Doherty, W. J., Erickson, M. F., & LaRossa, R. (2006). An intervention to increase father involvement and skills with infant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3), 438-447. <https://doi.org/10.1037/0893-3200.20.3.438>
- Fagan, J., & Barnett,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https://doi.org/10.1177/0192513X03256397>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
- Fox, G. L., & Bruce, C. (2001). Conditional fatherhood: Identity theory and parental investment theory as alternative sources of explanation of fathe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394-40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1.00394.x>
- Gaunt, R. (2008). Maternal Gatekeep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3), 373-395. <https://doi.org/10.1177/0192513X07307851>
- Gaunt, R., & Scott, J. (201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care: Do parental and work identities matt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4), 475-489. <https://doi.org/10.1177/0361684314533484>
- Goldberg, J. S. (2015). Identity and involvement among resident nonresident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36(7), 852-879. <https://doi.org/10.1177/0192513X13500963>
- Goodsell, T. L., & Meldrum, J. T. (2010). Nurturing fathers: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child-father attach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 (1-2), 249-262. <https://doi.org/10.1080/03004430903415098>

- Hofferth, S. L. (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Culture, context, or ec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24(2), 185-216. <https://doi.org/10.1177/0192513X02250087>
- Lamb, M. E. (1976). Interactions between two-year-olds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ical Reports*, 38(2), 447-450.
- Lamb, M. E. (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1-26). John Wiley & Sons, Inc. <https://doi.org/10.2466/pr0.1976.38.2.4>
- Marsiglio, W., Amato, P., Day, R. D. & Lamb, M. E. (2000) Scholarship on fatherhood in the 1990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173-1191.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0.01173.x>
- Maurer, T. W., Pleck, J. H., & Rane, T. R. (2001). Parental Identity and Reflected-Appraisals: Measurement and Gender Dynam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309-321.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1.00309.x>
-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a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 Pianta, R. C., & Nimetz, S. L. (199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Associations with classroom and home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3), 379-393. [https://doi.org/10.1016/0193-3973\(91\)90007-Q](https://doi.org/10.1016/0193-3973(91)90007-Q)
-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https://doi.org/10.1111/j.1651-2227.2007.00572.x>
- Schoppe-Sullivan, S. J., & Altenburger, L. E. (2019). Parental gatekeep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3rd ed., Vol. 3, pp. 167-198).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429433214-5>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https://doi.org/10.1037/0893-3200.22.3.389>
- Smilansky, S. (1968). *The effects of sociodramatic play on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John Wiley & Sons.
- Stevenson, M. D., Thompson, R. H., & Roach, M. A. (1988). Social relations model analysis of parent and chil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1-108. <https://doi.org/10.1037/0012-1649.24.1.101>

논문투고: 22.02.23.

수정원고접수: 22.09.22.

최종게재결정: 22.10.05.